

# 〈花蛇〉의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未堂의 初期詩 研究

吳 始 烈

## 目 次

- |                  |                  |
|------------------|------------------|
| I. 序 論           | Ⅲ. 〈花蛇〉와 初期詩의 관계 |
| Ⅱ. 〈花蛇〉의 기호학적 구조 | 1. 관능의 음악        |
| 1. 음성학적 층위       | 2. 상상력의 확대       |
| 2. 어휘론적 층위       | 3. 가쁜 숨결         |
| 3. 통사론적 층위       | 4. 선과 악의 갈등      |
| 4. 의미론적 층위       | Ⅳ. 結 論           |

## I. 序 論

1931년 〈東亞日報〉에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발표한 뒤 1936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壁”이 당선되어 등단한 未堂 徐廷柱는 그의 詩歷 50여년 동안 9권의 시집을 통해 다양한 詩的 변모를 보여주면서 500여 편의 많은 시작품을 내놓았다. 다양한 시적 변모는 확실히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거대한 탐을 이룩하였고 ‘大家’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그의 詩가 韓國文學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의 詩에 대한 연구도 방대한 양을 차지한다.<sup>1)</sup> 또한 「詩人部落」 동인으로 1930년대의 詩文學史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生理」의 柳致環과 함께 '生命派'라는 詩史的 위치도 점하고 있다.<sup>2)</sup>

未堂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긍정적인 평가 둘째, 부정적인 평가, 셋째는 그의 시는 성공적으로 보지만 세계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중간적인 평가가 그것이다.<sup>3)</sup> 이렇게 다른 견해들 중에서 초기시집인 《花蛇集》에 대한 연구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시도되어졌고 그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花蛇集》을 '生命공정의 白熱的 외침', 심각한 生의 문제를 노래한 훌륭한 서정시<sup>4)</sup>이며 육체와 정신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솔직하게 인정한 詩<sup>5)</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全載弘의 지적처럼 지금까지의 논고는 未堂의 시세계를 파악하는 데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결하고 있으며, 그 평론의 발상법에 있어서도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6)</sup> 이는 《花蛇集》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정작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없이 막연히 原罪意識의 발로로 보거나 영향관계의 한 증거물 정도로 취급한 것이 기존 평론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그러므로 문학연구에서 문학작품 자체의 해석과 분석은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시어는 보편적 언어의 속성을 뛰어 넘고 의식적으로 배열되고 짜여진다. 한 편의 시를 통해 그 시작품 뿐만 아니라 그 시작품이 일관된 맥락속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학 기호학의 방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시적 언어는 일상적인 언

1) 趙演鉉外, 《徐廷柱研究》1980. 同和出版公社에 실린 연구관계목록만도 84 편에 이르고 그의 학술 논문까지 포함하면 1000여 편 넘는다.

2) 趙演鉉, 《韓國詩文學史》, 成文閣, 1969. p. 507.

3) 金奉郡,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3. pp. 229~230.

4) 金學東, 〈徐廷柱詩人論〉, 《東洋文化》1966. 6. p. 120.

5) 宋 穰, 〈徐廷柱論〉, 《徐廷柱研究》, 同和出版公社, 1980. p. 18.

6) 金禹昌, 앞의책, p. 160.

7) 全載弘, 〈하늘과 땅의 변증법〉, 《月刊文學》1971. 5.

어와는 달리 반복을 통해 대칭 혹은 등가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시 속에서 패러다임으로 정리되어 시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sup>8)</sup>

시의 분석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花蛇集》의 표제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花蛇”를 음성학적, 어휘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분석이 초기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특질로서 일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작품에 대한 인상적인 진술뿐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결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호학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의 평가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문학 연구의 방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구실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 II. 〈花蛇〉의 기호학적 구조

시가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기호체계를 갖출 때 이를 獨子形態論이라 한다. 본래 기호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은 기호에 부재한 것인데, 이러한 부재를 극복하고 다름아닌 그 자체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독자형태론이 나타나는 것이다.<sup>9)</sup>

독자형태론은 시 속에서 기호학적으로 한 형상을 또다른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들은 결국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이다. 가령 시 속의 한 음성학적 요소가 있다면 공간적으로 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음성학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루는 관계들을 우리는 등가나 반복이라 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언어가 단지 계기적이고 선조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시적 언어는 이와 달리 반복을 통해 대칭 혹은 등가관계를 이룬다. 이는 시 속에서 패러다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이야말로 시의 의

8) 송효섭, 〈진달래꽃〉의 기호학과 恨의 소재론, 문학과 비평, 창간호.

9) 송효섭, 앞의책.

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점을 기본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적 진술은 일상적인 언어와 달리 시인의 의장에 의하여 선택되며 조직되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진술은 음성학적, 어휘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층위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또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먼저 <花蛇>를 분석하기에 앞서 작품의 全文을 제시하겠다.

## 花 蛇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베암…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동아리나

꽃다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達辯의 헛바닥이

소리없는채 벌롱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 물어뜯어라. 원통히무러뜯어,

다라나저라. 저놈의 대가리!

둘 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 芳草스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石油 먹은듯…石油 먹은듯…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크레오파투라의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향 입설이다…숨여라! 베암.

우리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힌 입설…슴여라! 베암.

(1941, 〈花蛇集〉 兩巖書庫)

### 1. 〈花蛇〉의 음성학적 층위

작품을 대할 때 조음양상들의 차이는 단순히 느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유한 의미에 독특한 이미지를 부여한다.<sup>10)</sup>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음성학적 층위에서의 특징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과 모음성 자음(+vocalic)과 비모음성 자음(-vocalic)의 대립이다.

#### 1)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적 교차는 일부 단어들을 수정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의미에 적합한 음성 조직의 어휘를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진 詩語를 작품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양성모음〉

- 麝香 薄荷 · 꽃다님 같다.
- 아름다운 베암 · 붉은 아가리
- 다라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 꽃다님보단도 · 고양이같이 고힌

#### 〈음성모음〉

-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 널롱그리는 · 물어 뜯어라

10) 다니엘 들라스, 자크 필리올레 지음, 유계식, 유계호 옮김, 《언어학과 시학》 p. 198. 인동, 1985.

- 石油 먹은듯... 石油 먹은듯...
- 숨여라

일반적으로 개구도<sup>11)</sup>가 낮은 양성모음의 음성징(sound symbol)은 밝고, 작고, 예리하며, 빠른 느낌을 주는 동시에, 개구도가 높은 음성모음의 음성징은 어둡고, 무겁고, 크고, 둔하고, 두텁고, 느린 느낌을 준다.<sup>12)</sup> 국어의 모음에서 /ɪ, ɨ/의 양성모음에 비하여 /ɨ, ɨ-/ 따위의 음성모음은 개구도가 높으며 또한 음성모음 중에서도 /-/는 더욱 개구도가 높다.

이 작품에서 양성모음은 주로 '뱀'의 아름다움을 수식하는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음성모음은 '뱀'에 대한 화자(persona)의 태도나 감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다. '꽃다님'같이 아름다운 '뱀'을 수식하는 부분에서 '꽃대님'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꽃다님'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양성모음의 음성징과 연결되어 밝고 작고 예리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다라나거라'의 부분에서는 거의가 /ɪ/의 양성모음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양성모음의 음성징 특징인 빠른 느낌을 주는 데 적합하다. 이와 대립되는 음성모음의 사용은 /-/ 모음의 의도적 사용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을마나 크다란'에서는 어둡고, 무겁고, 크고, 둔한 느낌을 찾을 수 있으며 '널롱그리는'에서는 '날름 거리는'의 의도적 변용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차적 대립은 대상과 화자의 정조(mood)상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꽃뱀'에 대한 '친화(+)'와 '이탈(-)'의 '의지적 행위'와 '비의지적 행위'등의 양면적 욕구와 갈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아름다움'과 '슬픔'으로 대

11)

	전설	중설	후설
폐	[i]	[ɨ]	[u]
반폐	[e]	[ø]	[ə]
개	[æ]	[a]	[o]

국어의 모음체계

남기심, 이정민, 이흥배 공저. <언어학 개론>. 탐출판사, 1984. p. 197.

12) 허용.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1985. p. 591.

립되는 ‘꽃뱀’에 대한 화자의 양면적 갈등의 소산이다.

2) 모음성 자음(+vocalic)과 비모음성 자음(-vocalic)의 대립

국어의 자음에서 모음성 자음인 /ㄴ, ㄹ, ㅁ, ㅇ/ 따위는 그 느낌이 부드럽고, 둥글며, 미끄럽고, 유동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비모음성 자음인 파열음이거나 마찰음으로 쓰이는 /ㄱ, ㄷ, ㅅ/ 따위는 단단하고 모나며, 둔탁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sup>13)</sup>

이 작품에서는 뱀의 둥글고 미끄럽고, 유동적인 형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뱀을 묘사하거나 이에 대한 상징물을 제시할 때는 모음성 자음을 구사하고 있고 화자의 대상에 대한 명령은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비모음성 자음을 구사하고 있다.

〈뱀의 묘사〉

- 징그러운 몸둥아리
- 뱀뿔그리는
- 우리순네

〈화자의 명령이나 심리상태〉

- 뜯어라(명령)
- 石油 먹은듯(화자의 심리)

혐오의 의미를 지닌 시어가 친화적인 모음성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의식에서는 대상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면서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무의식에서는 소유하고 싶은 감정이 교차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이상 음성학적 층위에서 〈花蛇〉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해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어의 의도적 변용으로 보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교차적 대립과, 모음성 자음과 비모음성 자음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이런 교차적

13) 앞의책. p. 586.

대립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갈등의 2원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교차적 대립의 효과는 '꽃뱀'에 대한 '친화(+)'와 '이탈(-)'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 2. 어휘론적 층위

〈花蛇〉에서는 이질적인 어휘의 병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양적인 어휘와 서양적인 어휘의 병치라든가, 고전적인 어휘와 현대적인 어휘의 병치, 그리고 색채어의 병치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질적 단어의 병치는 시적 긴장을 유발시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동시에 상상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sup>14)</sup>

### 1) 동양적인 시어와 서양적 시어의 병치

- 이브, 크레오파투라 → 순네, 스물난 색시
- 麝香 薄荷, 麝香 芳草 人길, 꽃다님 → 石油

'이브'와 '크레오파투라'는 서양의 여성이며 '순네'와 '색시'는 동양의 여성이다. 이런 동양적인 소재와 서양적인 소재의 병치는 시의 세계를 확장시켜줌과 동시에 특수성을 보편화시키는 구실도 한다. '이브'나 '크레오파투라'와 '순네', '색시'는 모두 젊고 관능적인 성격의 여성이다. 즉 동양과 서양의 특수한 문화를 인류의 보편적 문화의 패턴에 근거를 뚫으로써 공감대를 형성시켜줌은 물론 시적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

동양에서는 성을 감추고, 서양에서는 성을 드러낸다. 이런 관습을 '이브', '크레오파투라'와 '순네'를 결합시켜 성과 원죄의식이 양의 고금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麝香 薄荷'라든가 '麝香 芳草 人길', '꽃다님'과 같은 전통적인 시어와 '石油'와의 대립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균형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石油'의 등장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14) 김준오. 〈시론〉

동질성을 파괴함으로써 독자를 아연히 긴장하게 만들고, 시적 상상력을 확장시켜준다.

2) 색채어의 대립

- 꽃다님
- 붉은 아가리      ↔      푸른 하늘
- 피먹은양
- 붉게    타오르는

색채가 갖는 原型的의 이미지 중 붉은 색은 피, 희생, 난폭함, 정열, 혼란의 의미를 가지며, 푸른 색은 성장, 감각, 희망을 의미한다.<sup>15)</sup> 여기서의 ‘붉음’과 ‘푸름’의 대립은 자의식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붉은 색이 화자의 억압된 性충동이라면(Libido) 푸른 색은 그를 억압하는 Super ego가 되는 것이다. 즉 원색적이고 원시적이며 관능적인 붉음은 이성적이고 이상이나 도덕을 상징하는 푸름과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화자의 Id와 Super ego의 대립인 것이다.

이상 어휘론적 층위에서 〈花蛇〉를 분석해보았다. 어휘론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색채어의 이질적인 병치로써 시적 긴장을 유발시키며 독자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받게 하며 동시에 상상력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3. 통사론적 층위

음성학적 층위와, 어휘론적 층위에서 나타난 반복적 대립양상은 통사론적 층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변형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의 대립이 두드러지며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과 2음보(foot) 연첩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변형

15) Wilfred Guerin Et al, A Hand book of Critical Approach to Literchure, 鄭漢模, 金容稷, 《文學概論》, 博英社, 1982. p 100 再引用.

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의 대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변형된 문장이라 함은 통사구조에 있어 도치된 문장을 말하며, 완전한 문장은 바른 어순으로 짜여진 문장을 말한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가 생략된 문장도 변형된 문장에 포함시켰다.

### 1) 변형된 문장과 완전한 문장

앞에서도 밝혔듯이 변형된 문장으로서는 도치와 불완전한 서술격 조사의 생략을 들 수 있다. (주부의 생략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우리말은 주부가 잠재되는 통사구조를 지니고 있어 별다른 의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생략하였음)

#### <도치된 문장>

- 다라나거라/ 저놈의 대가리(←저놈의 대가리/ 다라나거라)
- 숨여라/ 베암(←베암/ 숨여라)
-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 크레오파투라의/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힌 입설이다.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크레오파투라의 고힌 입설이다.)

<花蛇>의 전체에서 도치의 문장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정치-도치-도치>의 구조를 띠면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도치 문장의 우세는 리듬을 급박하게 만드는 구실을 하는 동시에, 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 <서술격 조사가 생략된 문장>

- 아름다운 베암…
- 石油 먹은듯… 石油 먹은듯…
- 아름다운 빛…
- 고힌 입설…

이렇게 서술격 조사가 생략된 문장은 대체로 뱀에 대한 묘사 부분으로 생략 부호를 사용하여 서술격 조사를 생략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생략은 우선 시의 함축적 효과를 드높히는 구실을 한다. 또한, '石油 먹은듯... 石油 먹은듯...'의 생략 부분은 화자의 호흡이 다급함을 나타내는 구실도 하고 있다.

## 2) 동일한 통사 구조와 2음보 연첩

작품 〈花蛇〉는 통사 구조에 있어 〈수식어+서술어〉의 구조가 우세하며 반복적 사용으로 그 특징이 드러난다. 또한 동일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형성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식어+서술어 구조의 반복적 사용〉

- 麝香 薄荷의 / 뒤안길이다.
- 푸른 / 하늘이다.
- 고혼 / 입설이다...
- 가쁜 / 숨결이야
- 아름다운 / 베암...
- 아름다운 / 빛...
- 고혼 / 입설...

이런 예들은 뒤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드러나는 구조를 띤다.

〈동일어의 2음보 반복〉

- 물어 / 뜯어라 // 원통히 / 무려뜯어
- 쏘면서 / 쏘면서
- 石油 먹은듯... / 石油 먹은듯...

이와 같은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동일어의 2음보 반복은 리듬을 형성하는 구실을 하는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2음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리듬을 형성한다. 본능의 세계는 가장 원시적이며 단순한 세계이다. 이런 본능의 세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2음보의 다급하고 단순한 리듬형을 취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음보의 기저(base)는 음량에 있으며, 그것은 N+1>N>N-1의 범주 안에 들어야 원활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상당부분이 허용된 한

계를 벗어나 colon의 단위로 나뉘어지고 있다.

- 꽃다님 / 같다 (3음절 + 2음절)
- 너의/ 할아버지가 / 이브를 / 꼬여내든 / 達辯의 / 헛바닥이 (2음절 + 5음절 + 3음절 + 4음절 + 3음절 + 4음절)
- 푸른 / 하늘이다. / 물어뜯어라. / 원통히 무러뜯어(2음절 + 4음절 + 5음절 + 7음절)

이렇게 음절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colon 단위로 보면 대부분 2음보의 연접으로 나뉘어진다. •

- 너의 / 할아버지가 // 이브를 / 꼬여내든 // 達辯의 / 헛바닥이 //
- 이와 같은 음절의 다양한 변격은 시상의 자유분방함 내지 시상의 강렬성을 드높히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운문적 진술과 산문적 진술의 대립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명사형으로 끝나는 진술을 운문적 진술이라고 한다면 서술어로 처리된 진술을 산문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운문적 진술〉

- 아름다운 / 베암…
- 저놈의 / 대가리!
- 아름다운 빛…
- 습여라! / 베암.
- 고혼 입설…
- 스물난 색시,

#### 〈산문적 진술〉

- 麝香 / 薄荷의 / 뒤안길이다.
- 저리도 / 징그러운 / 몸둥아리냐
- 꽃다님 / 같다.
- 푸른 / 하늘이다.
- 원통히 / 무러뜯어

- 가쁜 / 숨결이야
- 바늘에 / 꼬여 / 두를까부다.
- 고혼 입설이다.

여기서 운문적 진술은 생략과 도치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감탄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생략과 감탄은 시의 논리적 전개를 가로막는 구실을 한다. 원초적인 性本能의 세계는 논리적일 수 없으며 또한 그 숨결은 다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운문적 진술은 산문적 진술의 대립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주제의식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 통사론적 층위에서 〈花蛇〉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효과를 찾아보았다. 변형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의 대립 속에서 도치된 문장의 우세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리듬을 급박하게 만들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구실을 한다고 보았으며, 동일한 통사구조와 2음보 연첩의 반복은 본능의 세계를 표현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음은 의미론적 층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4. 의미론적 층위

〈花蛇〉는 제목부터가 양면성을 띠고 있다. '善과 美'를 상징하는 '꽃'과 '惡과 醜'를 상징하는 '뱀'의 복합적 존재가 바로 '花蛇'가 된다. 이 작품 전체에서도 '밝음과 어두움', '도덕과 관능',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이탈하려는 의지'가 이원적으로 대립하면서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
- 아름다운 베암
- 꽃다님 같다
- (바늘에 꼬여)두를까부다
- 붉은 아가리로
- 뒤를 따르는 것은

-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훈 입설이다.
- (고양이 같이) 고훈 입설  
〈이탈하고자 하는 의지〉
- 뒤편길이다.
-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 정그라운 몸동아리다
- 바늘에 꼬여
- 푸른 하늘이다
- 돌 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 고양이같이

본능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부분은 밝고 강렬하며 아름답게 그리고 있으며, 그것을 제어하는 윤리적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부분은 어둡고 슬프고 정그러우며 위험하게 그리고 있다. 프로이트식의 Super ego와 Id의 대립인 것이다. 작품 전체로 본다면 본능적 유혹이 밝음 쪽을 택하고 있어서 본능적 세계가 강화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앞의 음성학적 층위, 어휘론적 층위, 통사론적 층위는 의미론적 층위와 유기적인 결합을 맺으면서 관능적인 세계에서의 화자의 원죄의식의 갈등을 표출시키고 있다.

### Ⅲ. 〈花蛇〉와 初期詩의 관계

앞에서 다룬 〈花蛇〉의 음성학적·어휘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 층위의 특질은 《花蛇集》 전반에 걸쳐 고루 나타난다. 따라서 〈花蛇〉에서 발견된 구조와 특질은 未堂의 初期詩 구조와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질은 앞의 분석과 연관시켜, 관능의 음악, 상상력의 확대, 기쁜 숨결, 선과 악의 갈등으로 집약되면서 연결될 수 있다.

〈花蛇〉에서 나타난 특질이 다른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관계는 어떠한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능의 음악

〈花蛇〉에서 뿐만 아니라 《花蛇集》의 여타 작품에서도 개구도가 높은 모음과 +vocalic의 자음이 자주 구사되어 관능의 음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능구렁이 같은 등어릿 길로,  
    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 “대낮”에서

- 바윗속 산되야지 식 식 어리며  
    피 흘리고 간 두럭길 두럭길에  
    붉은 옷 님은 몸둥이가 우러

— “麥夏”에서

- 쑥니플 지근지근 니빨이 히히여케  
    즘생스런 우슴은 달드라 달드라 우름가치  
    달드라.

— “입마춤”에서

“대낮”에서 ‘능구렁이 같은 등어릿길’에서는 개구도가 높으면서도 +vocalic의 자음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무의식 속의 관능 세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에서는 개구도가 낮은 양성모음이면서도 +vocalic의 자음을 구사하여서 무의식 세계의 관능이 의식의 세계로 떠오름을 상징하고 있다.

“麥夏”에서 ‘바윗속 산되야지’는 양성모음과 -vocalic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대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대응이며 ‘식 식 어리며 / 피 흘리고 간 두럭길 두럭길’은 음성모음과 -vocalic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능의 표현해춤과 동시에 화자의 격렬성을 드러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입맞춤”에서 인용한 부분은 전체가 음성모음과 +vocalic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이미 체험한 관능의 세계에 대한 화자의 느낌으로 관능의 세계를 반추하는 데 적합한 구조적 대응이라 하겠다.

인용된 부분에서 보았듯이 <花蛇>뿐만 아니라 《花蛇集》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이 개구도가 높은 모음과 +vocalic의 자음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관능적 음약을 제공함과 동시에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게 한다.

## 2. 상상력의 확대

이질적인 요소의 대립과 병치는 시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상상력을 확장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은 <花蛇>의 분석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 이런 예를 다른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 내 裸體의 에레미야書  
昆盧峰上的 強姦事件들

— “桃花桃花”에서

- 사알·보오드레-르처럼 설하고 괴로운 서울 女子를  
아조 아조 인제는 잊어버려,

— “水帶洞詩”에서

- 서서 우는 눈먼 사람  
자는 관세음

— “西風賦”에서

- 그날 꽃喪阜 山넘어서 간다음 내 눈동자속에는 빈하늘만 남드니…(중략)  
… 한번가선 소식없든 그 어려운 住所에서 너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 鍾路  
네거리에 뿌우여니 흐터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볕에 오는애들.

— “復活”에서

이질적인 병치는 인과관계를 초월한 진술이기 때문에 독자의 자율적 해석권이 강화되어 시적 상상력을 확대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桃花桃花”에서는 세속과 성서의 세계, 동양과 서양의 세계를 병치시키고 있으며 “水帶洞詩”에서는 이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의 병치를 볼 수 있으며, “西風賦”에서는 속계와 불계를, “復活”에서도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병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를 통해 〈花蛇集〉전체는 이질적 요소의 병치를 통해 상상력을 확대시키는 특질을 갖고 있다.

### 3. 가쁜 숨결

2음보의 연침은 가장 기본적인 리듬으로 원시적이고도 숨가쁜 본능을 표현하는 데 적합함을 〈花蛇〉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런 리듬은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 가시내두 / 가시내두 // 가시내두 / 가시내두  
 콩밭 / 속으로만 // 작구 / 달아나고  
 울타리는 / 막우 // 자빠트려 / 노코  
 오라고 / 오라고 // 오라고만 / 그러면

⋮

- 썩니풀 / 지근지근 // 니빨이 / 히허여케  
 증생스런 / 우슴은 // 달드라 / 달드라 // 우름가치 / 달드라

— “입마춤”에서

- 눈물이 / 나서 // 눈물이 / 나서  
 머리감어 / 느리여도 // 능금만 / 먹끓어서  
 산봐도 / 山보아도 // 눈물이 / 넘쳐나는 // 蓮順이는 / 어찌나... // 입  
 술이 / 붉어 온다

— “가시내”에서

- 따서 / 먹으면 // 자는듯이 / 죽는다는 // 붉은 / 꽃밭새이 // 길이 / 있어

— “대낮”에서

“입마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의가 2음보 연접으로 짜여져 있다. 화자와 대상의 본능적 행위가 가쁜 숨결로 연결되면서 토막토막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2음보의 연접과 더불어 《花蛇集》에서도 휴지성 부호가 자주 사용되는 특징을 지닌다. 생략부호(…)와 정지부호(.), 감탄부호(!) 등의 잦은 사용은 시의 논리적 전개를 제약하는 동시에 화자를 가쁜 숨결로 형상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 산봐도 산보아도 눈물이 넘쳐나는 運順이는 어찌나…입술이 붉어 온다.  
— “가시내”에서

- 어느 바람속에서도 부끄러운 열매처럼 부끄러운 계집애.

青蛇.

뽕나무에 오디개 먹은 青蛇.

天動먹음은,

번갯불 먹음은, 쏘내기 먹음은,

검푸른 하늘가에 草籠불달고…

— “瓦家の 傳說”에서

- 어찌하야 나는 사랑하는자의 피가 먹고 싶습니다

「雲母石棺속에 막다아레에나!」

— “雄鷄(下)”에서

- 보지마라 너 눈물어린 눈으로는 …

소란한 哄笑의 正午 天心에

다붙은 내입설의 피물은 입마춤과

無限 欲望의 그윽한 이 戰標을…

아—어찌 참을것이나!

슬픈이는 모다 巴蜀으로 갔어도,

윙윙그리는 불벌의 떼를

꿀과함께 나는 가슴으로 먹었노라.

— “正午의 언덕에서”

《花蛇集》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2음보 연첩과 휴지성 부호의 잦은 사용은 본능의 표현을 가쁜 숨결로 몰아넣고 시의 논리적 전개를 제약하면서 관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 4. 선과 악의 갈등

未堂의 初期詩는 〈花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층위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음성학적 층위, 어휘론적 층위, 통사론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대립은 의미론적 층위에 종합되어 다시 대립한다. 이런 대립은 ‘善과 惡’의 갈등을 의미한다. 즉, 본능적인 세계는 악이며 도덕적인 세계는 선인 것이다. 이런 선과 악의 상정은 다음과 같은 의식구조에서 비롯된다. 의식적인 세계에서는 선을 추구하지만 무의식적인 세계에서는 악을 추구하는 이원적인 의식구조가 그것이다.

- 핫슈 먹은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렁이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두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 “대낮”에서

-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콩밭 속으로만 작구 다라나고
- 울타리는 막우 자빠트려 노코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 “입마춤”에서

‘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는 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달아남)와 그럼에도 소유하고 싶은 욕구(부름)의 갈등이며, 화자가 이를 주목함 역시 '따라가고 싶음'과 '도망가고 싶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입마춤"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Super ego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쫓아가고 싶음은 Id의 욕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악의 대결인 셈이다.

이런 대립 속에서 화자는 官能에 몰입하고 만다. 性은 숨은 생명이다. 관능적 인간은 원초적인 性本能의 세계 속에서 삶의 자연성을 획득하고 삶의 움직임과 일체가 되려 한다. 적나라한 性本能의 세계는 이미 현실의 지배를 벗어나고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필연적으로 반이성적이고 반문명적인 원시주의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未堂의 세계관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그는 관능을 통해 원시적인 생명력을 표출하려 했고 그런 원시주의자로서의 인간을 신뢰한 셈이다.

#### IV. 結 論

이상 필자는 <花蛇>를 음성학적 어휘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층위에서 분석하여 거기서 나타나는 특질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그것이 未堂의 初期詩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런 관계 속에서 그의 初期詩의 특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초기시의 특질이 '官能' 또는 '原罪意識'으로 대표된다는 데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일관되어 온 인상비평의 한계를 넘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문학연구 방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花蛇>분석의 결과 음성학적·어휘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 층위에서 대립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음성학적 층위에서는 양성모음(꽃다님갈다 등)과 음성모음(을마나 크다란 등)의 대립과 모음성 자음(+vocalic)의 반복(넝롱그리는 징그라운 몸둥아리 등)과

모음성 자음과 비모음성 자음(-vocalic)의 대립이라는 특질을 찾을 수 있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에서는 밝음과 어두움의 대립이 시적 효과로 나타나면서 대상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표출된다. 그리고 모음성 자음의 반복은 '뱀'의 유동적이고 관능적 이미지가 시적인 효과를 높혀주었고 모음성 자음과 비모음성 자음에서는 대상과 화자의 갈등이 대립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어휘론적 층위의 두드러진 특징은 동양적인 어휘와 서양적인 어휘의 병치(이브, 크레오파투라와 순네, 스물난 색시)와 고전적 어휘와 현대적 어휘의 병치(麝香 薄荷, 麝香 芳草 石油), 그리고 색채어(붉음과 푸르름)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질적인 단어의 병치는 독자로 하여금 시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상상력을 확대하는 시적 효과를 드러내며, 전통의 계승과 창조의 면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또한 색채어의 대립은 원색적이고 관능적인 것과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것과의 갈등을 잘 드러내 주었다.

통사론적 층위에서는 〈수식어+서술어〉 구조가 골격을 이루면서 2음보 연철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어휘의 반복과 생략, 도치를 통한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리듬을 형성시켜준다. 가장 기본적인 리듬인 2음보의 연철은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시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구실을 하며 도치, 생략, 감탄문의 사용은 다급함과 함께 논리의 전개를 단절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세계는 논리적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비논리적 통사구조는 한층 관능의 가쁜 숨결을 몰아쉬게 한다.

선과 악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의미론적 층위에서는 Id와 Super ego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이원적으로 대립되어 나타난다.

2) 이와 같은 구조는 未堂의 初期詩集인 〈花蛇集〉에 실린 여타의 작품에도 고루 나타난다. 그러므로 初期詩의 특징은 관능적인 음악이며, 상상력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그 리듬은 숨가쁘게 전개되고 선과 악의 갈등으로 대립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대립구조는 관능에 대한 原罪意識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Id와 Super ego의 대립이라고도 하겠다. 이

런 대립 속에서 화자는 관능에 몰입해버린다. 여기서 作家의 세계성을 인식할 수 있다. 未堂은 원시적 생명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관능의 세계에서 生命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당대의 한국시가 유사성에 의하여 인과적인 결합(A like A', A is A')의 진술에 머물렀음에 반하여 未堂의 詩는 이질적 사물의 결합이나 병치 또는 상징 (A is B, A and B, A have some Idea)라는 형식의 진술을 통해, 우리 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기호학을 통한 作品의 분석을 통해 '官能'과 '原罪意識'으로 대표되는 未堂의 初期詩의 특징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도출해보았다. 이런 분석 방법은 문학 연구 방법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리라는 기대 속에 시도된 것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깊이있는 분석을 통한 주체의 의식구조에 대한 파악이 남은 과제라 생각하면서 글을 맺는다.

## 참 고 문 헌

### · 單行本

- ① 金奉郡,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3.
- ② 金時泰, 《現代詩와 傳統》, 成文閣, 1981.
- ③ 金載弘, 《韓國現代詩人 研究》, 一志社, 1986.  
《詩와 眞實》, 二友, 1984
- ④ 金峻五, 《詩論》, 文章, 1986.
- ⑤ 김대행,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 ⑥ 남기심, 이정민, 이흥배 공저, 《언어학 개론》, 탐출판사, 1984.
- ⑦ 다니엘 들라스 / 자크 필리올레 지음, 유제식·유제호 옮김, 《언어학과 시학》 인동, 1985.
- ⑧ 유리르트만지음, 유재천 옮김, 《시텍스트의 구조분석》, 가나, 1987.
- ⑨ 趙演鉉外, 《徐廷柱研究》, 同和出版公社, 1980.

- ⑩ 趙演鉉, 《韓國詩文學史》 成文閣, 1969.
- ⑪ 켈빈S. 호을, 《프로이트 심리학입문》, 黃文秀譯, 汎友社, 1977.
- ⑫ 허웅,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1985.

· 論文

- ① 金時泰, 〈徐廷柱의 逆說의 意味〉, 現代文學, 1975년, 4월.
- ② 김희영, 〈기호학적 비평의 이론과 실제〉, 문학과 비평, 창간호, 1987.
- ③ 徐益煥, 〈徐廷柱詩研究〉, 한국어문학탐구, 민족문화사, 1983.
- ④ 송효섭, 〈진달래꽃〉의 기호학과 恨의 소재론, 문학과 비평, 창간호.
- ⑤ 安東柱, 〈未堂 徐廷柱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1982.
- ⑥ 李盛夫, 〈徐廷柱의 詩世界〉, 創作과 批評, 26호, 1972.
- ⑦ 千景祿, 〈「花蛇集」의 이미지 研究〉, 선청어문, 제14·15합집.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1986.
- ⑧ 崔東現, 〈徐廷柱詩研究〉, 全北大教育大學院, 1982. 2.
- ⑨ 崔元奎, 〈徐廷柱의 詩精神研究〉, 《國語國文學》 49·50합병호, 1970.